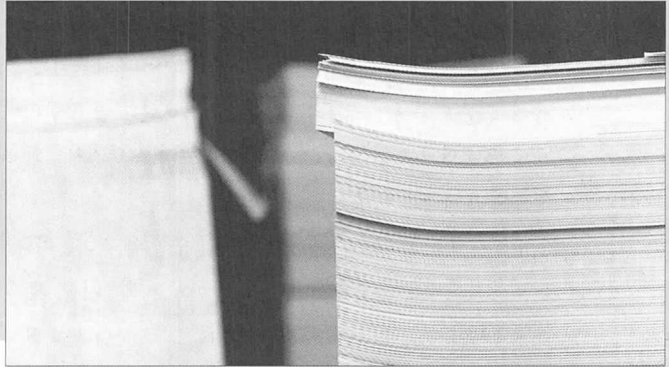


## “종이의 질감과 색감은 독립적인 가치다”

이중환 | 출판평론가 · 한국문화복지협회의장

종이는 그 자체의 힘으로 앞으로도 계속 생존할 것이다. 종이의 질감과 색감을 대체할 만한 자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책은 어떤 자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묘한 호소력으로 소유욕을 자극한다. 이 점이 바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적하는 종이책의 강력한 무기다.



우리의 인쇄물들은 그간 종이의 질에 몽매한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자재로 책을 만들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사진은 책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인쇄소의 종이더미.

파스텔화에서는 무엇보다 종이의 질감과 색감이 중요하다. 종이의 표면은 파스텔이 묻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결이 있어야 하고, 바닥의 색은 또 어두운 색과 대조를 이루거나 음영의 표현방법으로 쓰인다. 이 때 종이의 이름들도 다양하다. 캔손지, 보드지, 캔트지, 목탄지, 트레이싱지 등이다.

### 종이의 질감을 따를 자재는 없어

종이의 질감과 색감의 다양성은 종이가 단순히 노트나 인쇄물의 기본 용재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종이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갖고 있다. 종이란 마치 인쇄물과 노트의 기본 소재 정도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아무 데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처에 종이는 가득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질감과 색감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자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방안의 벽지는 비닐류들이 결코 경쟁할 수 없다. 창호지는 어떤 화학제품보다 질기다. 각종 포장지로도 탁월하다. 14세기부터 쓰인 종이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절하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현상에서 종이의 운명도 인쇄물의 운명과 같이 축소되는 항목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쉽게 진전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종이의 축소에 가장 먼저 단정적 발언을 한 것은 미래학 전문가인 존 네이스비트였다. 그는 1980년대 초 《메가트렌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인간의 종이 사용량은 반감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종이 사용량은 25배나 늘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컴퓨터 화면에서 눈에 띄는 중요사항일수록 즉시 프린트해서 종이에 옮긴 상태로 만들어 갖는다.

컴퓨터 화면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친지들에게 잘라서 보여줄 수도 없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떤 문서에 대해 내 손으로 쥐고

읽고 그 다음 접어서 주머니 속으로 넣는 일에 안도감을 느껴 왔다. 이 습관은 좀처럼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오늘의 컴퓨터 1세대나 2세대까지도 여전히 종이를 만지는 일부터 습득하기 때문이다.

### “종이는 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화기호다”

e-북과 함께 시도되고 있는 또하나의 방법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받아보는 형식의 책이다. 이 다운로드된 책은 과연 PC 화면으로만 읽게 될 것인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무척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정말 좋은 원고일수록 다운로드 파일을 종이에 프린트해서 볼 것이다.

물론 종이의 질감과 색감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는 있다. 우리 사회의 인쇄물들은 그동안 종이의 질에 대해 몽매한 수준에 머물렀다. 도서용지의 다양성은 구경해본 일도 없고, 그저 갱지·모조지·아트지라는 구분만 해왔다. 그래서 종이결이 무엇인지, 눈을 보호하는 종이 무엇인지, 종이의 선택이 곧 책 내용의 성격을 표시하는 문화적 기호라는 것 같은 지식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이의 질감이나 색감에 의한 문화제품의 창조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의 책들은 책 내용보다 책의 자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책의 호소력과 소유욕을 자극한다. 이것은 종이의 독립적인 가치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와 대적하는데 종이의 이런 독자적인 가치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 따라서 종이는 종이 그 자체의 힘으로 생존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또 앞으로 살아갈 책은 좀더 종이의 위력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책을 잘 만든다는 일은 곧 그 자재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시장성을 얻게 될 것이란 뜻이다. 이런 경향은 메모지나 노트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